뫼비우스의 띠

1515655 컴퓨터과학부 임소희

지구상에 인간이 출현하기 전·후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는 ‘인위성’이다. 야생동물을 가축화하여 기르고 작물을 인위적으로 심고 재배한다. 지난 수천 년간 이러한 방식들은 자연과 공존이라는 암묵적 규칙 속에서 행해져 왔다. 그러나 1세기 무렵 전 DDT의 출현이 판도를 바꾸었다. 자연 공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자연 지배라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을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 규칙은 인간의 이분법적인 어리석은 생각이다. 『침묵의 봄』과 『에프킬라를 뿌리며』는 그 사상의 폐해를 보여준다. 『침묵의 봄』은 DDT의 무차별적 사용이 해충뿐 아니라 익충, 동물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을 받은 생물들 중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명시한다. 이는 『에프킬라를 뿌리며』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에프킬라로 모기를 죽이는 것이나 고엽제로 의도치 않게 인민들을 죽어나가게 하는 것은 결국 자연을 정복한다는 인간의 오만에 대한 비극적 결과이다.

생물 전반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죄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비록 자연 지배적 생각을 지니긴 했어도 그 방법의 폐해에 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죄를 추궁할 대상이 없으므로 죄를 책임질 이도 없게 된다. 즉, 자연에 가한 통제적 행위가 결국 인간을 열쇠 없는 수갑에 묶인 죄수로 만들게 된다.

그렇다면 이 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침묵의 봄』에도 나와있듯이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배적 도구로의 관점을 버리고, 인간은 자연에 속한 생물로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뫼비우스의 띠’이다. 뫼비우스의 띠는 종이를 한 번 비틀어 끝을 맞붙인 것으로, 안과 밖의 구분이 없다. 두 면으로 구분되지 않고 한 면만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도 마찬가지다. 편의상 구분 지으려고 이름을 달리하는 것 일뿐, 인간은 자연에 속해있다. 그러므로 지난 1세기 동안의 자연 지배적 사고는 부분이 전체를 통제한다는 모순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인간은 자연이라는 뫼비우스의 띠를 걸어나가는 수 많은 생물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과 같은 자연 공존의 방안을 모색하자. 자연이라는 띠가 끊어지지 않도록 개’발’에 너무 힘주지 않고 모든 생물들과 손잡고 걸어나가야만 한다.